

한국 기독교인들의 영적 만족과 결혼 만족의 관계

K-ENRICH: Spiritual Power on Marriage

저자 (Authors)

김덕일, 송원영

DeoK Il Kim, Won Young Song

출처 (Source)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1, 2011.06, 49-70 (22 page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1, 2011.06, 49-70 (22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ing & Psychology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7063623

APA Style

김덕일, 송원영 (2011). 한국 기독교인들의 영적 만족과 결혼 만족의 관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1, 49-70.

이용정보 (Accessed)

건양대학교

211.225.30.***

2017/11/04 19:2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011. 05. 49 - 70

한국 기독교인들의 영적 만족과 결혼 만족의 관계

김덕일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송원영 /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I. 서론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언급한다. 인간은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으며(창 1:26), 놀랍게 만들어졌으며(시 139:14),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한다(요 3:16, 벧전 1:19). 또한 성경은 서로 돕는 공동체를 강조하고(히 10:24-25), 인생의 목적이 있음을 말한다(사 43:21, 마 28:19-20).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이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상호 지지와 협력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이를 통해 인간은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종교성과 행복감에 대한 연구 결과, 종교성과 행복감은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교회에 출석하여 활동하는 신앙인들의 경우에는 행복감과 종교성이 서로 강하게 영향을 주고받았다(김동기, 2007).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고

* 제 1저자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송원영 /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 (320-711) 충남 논산시 대학로 119. Tel : 041-730-5414 / Fax : 041-730-5416 / E-mail : 1058@paran.com

건양대학교 | IP: 211.225.30.*** | Accessed 2017/11/04 19:24(KST)

만족감을 느끼며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행복감을 더욱 많이 느낀다고 할 수 있다. 신앙생활이 개인의 행복감을 증진한다면, 그래서 이런 개인들이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된다면, 종교성이 부부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성경은 부부관계에 대한 가르침도 주고 있다. 신약성경은 이혼에 대하여 제한적인 허용을 하고 있으나(마 19:9, 고전 7:15), 근본적으로는 결혼을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으로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마 19:6). 구약성경에는 더 강한 어조로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한다는 언급이 있다(말 2:16). 이러한 강조는 종교성이 강한 기독교인들은 이혼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연구(Sullivan, 2001)를 통해 실증적으로 증명되기도 하였다. 또한 부부관계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인 가정폭력에서도 영성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정폭력에 대하여서도 명확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말 2:16, 표준새번역). 가정폭력은 결혼 만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Stith, Green, Smith, & Ward, 2008)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Riggio, 2004; McNeal, Herschell, Gurwitch & Clemens-Mowrer, 1998; DeVoe & Smith, 2002; 노치영, 박성연, 1992; 이지연, 오경자, 2007). 가정폭력에 대해 부정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기독교인이 강한 종교성을 갖을수록 행복감을 느끼며 이혼에 대해 부정적이라면, 가정폭력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강한 종교성과 부부만족도가 반비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Altemeyer는 1980년대부터 권위주의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은 종교성이 강하다고 보고하였다(Altemeyer와 Hunsberger, 1992; Leak과 Randall, 1995).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부부만족도와 부부문화 성향에 대한 연구는 신학교육을 많이 받고 목회를 오래한 목회자일수록 부부문화가 수직적이었으며, 결혼 만족도가 낮았다고 보고하였다(반신환, 조성현과 조윤옥, 2008).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즉 수직적인 부부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교성이 강하지만, 부부만족도는 떨어진다는 추론이 가

건양대학교 | IP: 211.225.30.*** | Accessed 2017/11/04 19:24(KST)

능하다. 종교성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종교성이란 개념은 좀 더 포괄적으로는 영성(spirituality)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인간의 삶에 대한 만족감, 가치, 생활양식을 통하여 절대자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Walsh, 1999). 박정묘와 심혜숙(2009)은 영성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Mahoney, Pargament, Tarakeshwar와 Swank(2001)는 1980년대와 90년대에 실시된 영성과 가족 기능에 대한 94가지 연구를 메타 분석하여 이 둘 간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Mahoney 등(2001)은 기존 연구들의 몇 가지 한계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날카로운 지적을 하였다. 첫째, 분석한 연구의 80% 이상이 종교성을 측정할 때 단 하나의 질문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횟수를 묻거나 등록교인을 묻는 등의 질문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교회 출석 여부와 그 사람의 신앙 정도가 반드시 높은 상관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이들이 거론한 두 번째 문제는 다수의 질문을 사용한 연구라 할지라도 커플이 상호 간 영적으로 만족하는가의 문제보다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남성과 여성의 결혼 만족도에 대한 응답은 서로 다른 경우가 많고, 비교적 종교성이 강한 커플이라도 영적인 측면에 대해 커플이 상호 간 만족하는 부부가 있고, 만족하지 않는 부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 만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문제점은 결혼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반적인 부부관계에 있어서 만족하고 있다고 추정하기엔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 또 종교성이 강할 때,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영향을 덜 받거나 전혀 받지 않는 영역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인의 영성을 측정하는 척도가 2003년에 개발되었다(이경열, 김정희와 김동원, 2003). 이 척도는 초월성, 삶의 의미와 목적, 자비심, 내적 자원, 자각 연결성 등 6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30문항이다. 서양의 문화적 배경이 아니라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개발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

건양대학교 | IP: 211.225.30.*** | Accessed 2017/11/04 19:24(KST)

다. 그러나 신앙과 연관성이 없고 부부가 동시에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이 척도를 사용한 다른 연구들을 찾아볼 수 없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반면 ENRICH 검사에서 영적 만족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들은 신앙생활이 부부관계 성장을 돕는지, 힘들 때 부부가 함께 신앙을 의지하는지, 영적 신념들 때문에 부부가 더 가깝게 느끼는지 등을 묻고 있다. 문항의 내용이 수평적이며 탈권위적인 관점에서 부부의 영적 만족을 측정하고 있으므로,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이어서 생기는 문제들을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 ENRICH 검사는 개인의 영적 만족을 측정할 뿐 아니라, 부부간의 일치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결혼생활에 대한 다양한 배경정보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서 위의 Mahoney 등(2001)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대답이 가능할 수 있다.

Fowers, Montel과 Olson(1992)은 ENRICH의 결혼 전 버전인 PREPARE 검사를 실시하고 결혼 이후 3년간 종단연구를 하여 영적 만족이 낮은 커플 유형일수록 이혼이나 별거를 많이 하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Larson과 Olson(2005)은 ENRICH를 사용하여 영적 만족과 결혼 만족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특히 영적 만족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보다 원가족에 대한 평가를 제외한 모든 결혼 만족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고, 이것은 개별 점수의 비교와 결혼 만족에 따른 유형(활기찬, 전통적인, 활기 없는 등의 5개 유형) 간의 비교에서 모두 일관성 있게 검증되었다. 한편, 영성은 가정폭력과 부적인 관계가 있으며(Asai & Olson, 2003), 가정폭력은 부부간의 만족도와도 부적인 관계가 있다. 따라서 영성은 부부간의 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부간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가정폭력에 대하여는 이를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수평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서구의 연구 결과들이다. 문화적인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면, 수평적인 관계의 중요성이 단지 서구 문화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며,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수직적이며 권위주의적인 태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건양대학교 | IP: 211.225.30.*** | Accessed 2017/11/04 19:24(KST)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개관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영적 만족과 결혼 만족의 관계를 살펴보고 영적 만족과 가정폭력 그리고 학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영적 만족도와 다른 결혼 만족도와의 상관을 살펴보았고, 이혼 고려 여부, 가정폭력 발생 여부 등에 대해 비교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II.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ENRICH KOREA의 협조를 받아 국내에서 ENRICH 검사를 받은 기독교인 부부 815쌍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검사를 받은 부부들은 ENRICH검사 사용을 위한 워크샵을 통해 활용 자격을 얻은 지도자들이 진행한 결혼 만족 세미나나 교회, 병원, 상담소 등에서 부부 치료에 참석한 부부들이었다. 남편의 평균 연령은 38.7세 아내의 평균 연령은 36.4세로 나타났으며 결혼 기간은 평균 9.6년이었다. 자세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인구 통계학적 특성(N=815)

특성(단위)		남편		아내	
		빈도	%	빈도	%
연령(세)	25세 이하	3	.4	13	1.6
	26-30	64	7.9	131	16.1
	31-35	227	27.9	234	28.7
	36-40	167	20.5	146	17.9
	41-45	152	18.7	159	19.5
	46세 이상	202	24.8	132	16.2

건양대학교 | IP: 211.225.30.*** | Accessed 2017/11/04 19:24(KST)

결혼기간(연수)	0-5	257	31.5	257	31.5
	6-10	179	22.0	179	22.0
	11-15	158	19.4	158	19.4
	16년 이상	221	27.1	221	27.1
소득(만원)	0-70	78	9.6	302	37.1
	71-100	51	6.3	72	8.8
	101-150	124	15.2	89	10.9
	151-200	141	17.3	88	10.8
	201-300	164	20.1	135	16.6
	301-400	108	13.3	58	7.1
	401-500	65	8.0	28	3.4
	501만원 이상	84	10.3	43	5.3
직업	공무원/사회복지	50	6.1	29	3.6
	법조계/의료계	33	4.0	22	2.7
	회사원/영업/기술직	242	29.7	69	8.5
	성직자/교수/교사	276	33.9	367	45
	중소기업 대표	69	8.5	5	.6
	상업/농업	38	4.7	20	2.5
	학생	31	3.8	25	3.1
	전업 가사일	3	.4	367	45.0
	무직/실업	19	2.3	25	3.1
	기타	54	6.6	72	8.8
전체	1058	100	1058	100	

2. 측정 도구

ENRICH 결혼 만족 척도. 다차원적인 결혼 만족의 영역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ENRICH 결혼 만족 척도는 Olson, Fournier, Druckman(1981)에 의해 개발되었고, 1986년에 개정되었다. ENRICH 검사는 결혼 3년 이후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로서 1개의 타당도 척도와 10개의 결혼 만족

건양대학교 | IP: 211.225.30.*** | Accessed 2017/11/04 19:24(KST)

하위 척도, 각각의 하위 척도를 대표하는 별도의 문항 10개로 구성된 1개의 결혼 만족 척도와 4가지 성격 특성 척도, 그리고 부부와 원가족의 응집성(Cohesion)과 적응성(Adaptability) 정도를 알려주는 4가지 척도 등 총 20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판 ENRICH 검사는 2009년에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졌다(김덕일, 박재우, 송원영, 이지연, 2009). 타당화 연구에 의하면 한국판 검사의 내적 일치도는 전반적 결혼 만족도에서 .87의 높은 점수를, 소척도들에서 .63-.87의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10개의 소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역시 RMSEA 값이 .048로 적합하게 보고되었다. ENRICH 검사는 기초 인구 통계적 변인과 결혼 관련 기초 변인을 묻는 30개의 배경 질문 문항과 결혼 만족에 대한 165개의 문항에 대해 남편과 아내가 각각 모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이 아닌 결혼 중에 있는 부부가 분석과 평가의 기본 단위가 되며 이러한 특성은 이 검사가 기본적으로 부부 치료의 초기 평가 혹은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결혼 증진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반영한다. 물론 남편과 아내 개인의 각 영역에서의 만족도가 평가되며 이 점수가 제시되지만 최종적으로는 부부가 긍정적으로 일치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긍정일치점수(PCA, Positive Couple Agreement)라는 각 하위 영역별 점수가 산출되도록 되어 있다. 순방향 질문인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가 4(대체로 그렇다.) 또는 5(매우 그렇다.)로 대답했을 때, 역방향 질문인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가 1(전혀 아니다.) 또는 2(대체로 아니다.)로 대답했을 때 점수가 주어진다. 즉 남편과 아내가 모두 결혼에 만족하고 있다고 대답할 때 점수를 얻게 되는 것이다. ENRICH에서는 PCA 이외에도 한 명은 만족하고 한 명은 만족하지 못하는 불일치 점수, 두 명 모두 불만족하는 부정일치 점수를 제공해주고 있다.

3. 분석 방법

영적 만족이 결혼 만족의 다른 하위요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PSS 15.0을 사용하여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과 부부를 각각 영적 만족 여부에 따라 상위 25% 이내는 만족 집단, 하위 25% 이하

건양대학교 | IP: 211.225.30.*** | Accessed 2017/11/04 19:24(KST)

는 불만족 집단, 두 집단의 사이에 있는 중간 집단 이렇게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영적 만족이 이혼 고려 여부와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카이 자승 검증을 실시하였다. 가정폭력의 발생 여부는 '배우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성적, 언어적 학대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한 자료를 바탕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비폭력 집단으로 둘 중 한 명이라도 학대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폭력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남편과 아내의 개인적인 영적 만족에 따른 학대 발생 여부를 조사할 때에는, 남편의 영적 만족 여부와 아내가 학대당했다고 보고한 자료, 아내의 영적 만족 여부와 남편이 학대당했다고 보고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III. 결과

영적 만족 정도에 따라 결혼 만족도에 대한 통계적인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각 집단의 결혼 만족 정도를 영역별로 살펴보았고, 남편과 아내를 따로 비교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혼 고려 여부나 폭력과의 관계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이러한 지표가 의미있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2〉 만족 집단 구분

	부부		남자		여자	
만족 집단	376	46.1%	246	30.2%	238	29.2%
중간 집단	205	25.2%	341	41.8%	365	44.8%
불만족 집단	234	28.7%	228	28.0%	212	26.0%
계	815	100.0%	815	100.0%	815	100.0%

건양대학교 | IP: 211.225.30.*** | Accessed 2017/11/04 19:24(KST)

집단의 구분은 Trochim(2002)의 방법에 따라 상위 25%와 하위 25%를 각각 만족 집단, 불만족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로 집단을 구분한 결과 부부의 영적 만족 점수를 기준으로 0점부터 100점 중에서 90점 이상은 만족 집단, 60점 이하는 불만족 집단으로 나뉘었다. 남자 개인은 영적 만족 개인 점수를 기준으로 10점부터 50점 중에서 47점 이상은 만족 집단, 39점 이하는 불만족 집단이었다. 여자 개인은 영적 만족 개인 점수를 기준으로 10점부터 50점 중에서 46점 이상은 만족 집단, 37점 이하는 불만족 집단이었다. 그러나 경계선에 있는 동점자는 모두 상위 집단 또는 하위 집단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전체대상 중 집단구분이 정확하게 25%, 50%, 25% 구분이 되지는 않았다. 자세한 수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3〉 부부의 영적 만족 정도에 따른 결혼 만족도의 차이

영역	1. 불만족	2. 중간	3. 만족	SS	df	MS	F	Scheffe
전반적인 결혼 만족도	25.56 (24.46)	45.12 (25.56)	63.70 (24.02)	212212.42	2	106107.21	176.17***	3>2>1
성격 문제	18.25 (20.30)	30.44 (21.15)	40.74 (25.32)	73429.71	2	36714.86	69.72***	3>2>1
의사 소통	27.35 (20.08)	41.02 (21.73)	53.30 (22.94)	97935.56	2	48967.78	102.60***	3>2>1
갈등 해결	19.74 (18.83)	30.10 (21.03)	39.34 (21.68)	55816.81	2	27908.41	64.91***	3>2>1
재정 관리	37.95 (28.18)	58.05 (26.39)	65.53 (27.20)	111212.10	2	55606.05	74.69***	3>2>1
여가 활동	24.57 (18.69)	33.56 (21.70)	47.37 (21.38)	78874.23	2	39437.12	91.76***	3>2>1
성 관계	43.16 (28.14)	56.63 (26.29)	70.35 (24.55)	108235.66	2	54117.83	79.68***	3>2>1
자녀 양육	35.17 (26.73)	50.88 (29.43)	61.49 (32.12)	99947.21	2	49973.61	55.58***	3>2>1

건양대학교 | IP: 211.225.30.*** | Accessed 2017/11/04 19:24(KST)

가족 친구	34.70 (23.31)	50.73 (24.29)	58.86 (22.82)	84360.18	2	42180.09	77.45***	3>2>1
역할 관계	44.83 (23.64)	53.51 (20.06)	61.12 (21.04)	38547.90	2	19273.95	41.38***	3>2>1
커플 친밀	41.24 (27.29)	61.76 (23.56)	73.35 (21.16)	148811.36	2	74405.68	132.88***	3>2>1
가족 친밀	35.47 (26.34)	34.20 (25.28)	38.86 (25.91)	3388.51	2	1694.25	2.53***	
커플 유연	33.21 (26.33)	51.41 (22.68)	64.79 (20.51)	144107.92	2	72053.96	137.94***	3>2>1
가족 유연	35.13 (25.21)	32.10 (23.66)	37.87 (24.67)	4507.50	2	2253.75	3.73*	3>2

( ) 안은 표준편차

만족 정도에 따른 평균점수의 차이와 통계 검증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부의 영적 만족 정도에 따라 결혼 만족의 전반적인 영역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영적으로 서로 만족스러운 부부들은 불만족한 부부들보다 부부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부부의 영적 만족의 정도는 각자의 원가족의 친밀감과 융통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영역들은 커플 유연(F=137.94), 커플 친밀(F=132.88), 의사 소통(F=102.60) 등이었고 가장 차이를 적게 보이는 영역들은 역할 관계(F=41.38), 자녀 양육(F=55.58), 갈등 해결(F=64.91) 등이었다.

〈표 4〉 남자 개인의 영적 만족 정도에 따른 영역별 결혼 만족도의 차이

영역	1. 불만족	2. 중간	3. 만족	SS	df	MS	F	Scheffe
전반적인 결혼 만족도	28.55 (25.55)	48.86 (27.18)	65.08 (24.21)	158250.88	2	79125.44	118.32***	3>2>1
성격 문제	19.69 (21.06)	31.26 (22.19)	43.41 (26.06)	66695.33	2	33347.66	62.34***	3>2>1

건양대학교 | IP: 211.225.30.*** | Accessed 2017/11/04 19:24(KST)

의사 소통	30.04 (21.46)	42.17 (22.89)	55.37 (22.76)	76077.57	2	38038.79	75.44***	3>2>1
갈등 해결	22.98 (19.93)	29.56 (21.42)	41.70 (21.69)	43444.38	2	21722.19	48.79***	3>2>1
재정 관리	41.10 (28.99)	56.74 (28.45)	67.89 (25.88)	85527.12	2	42763.56	55.10***	3>2>1
여가 활동	27.46 (20.90)	36.36 (21.60)	47.89 (22.14)	49959.05	2	24979.53	53.67***	3>2>1
성관계	45.13 (28.23)	59.44 (27.12)	71.54 (24.43)	82624.90	2	41312.45	58.13***	3>2>1
자녀 양육	37.59 (27.30)	52.02 (30.67)	62.89 (32.88)	76070.41	2	38035.21	40.96***	3>2>1
가족 친구	38.38 (25.00)	49.91 (23.60)	60.49 (23.69)	57849.34	2	28924.67	50.11***	3>2>1
역할 관계	46.54 (23.24)	53.40 (20.98)	63.50 (21.17)	34782.95	2	17391.48	36.97***	3>2>1
커플 친밀	44.61 (29.12)	61.99 (24.17)	75.52 (20.09)	113507.66	2	56753.83	94.05***	3>2>1
가족 친밀	34.21 (25.37)	35.48 (26.11)	40.73 (25.81)	5915.89	2	2957.95	4.44*	3>1
커플 유연	37.19 (27.49)	52.26 (23.98)	66.54 (20.12)	101949.00	2	50974.50	88.76***	3>2>1
가족 유연	33.46 (23.82)	34.02 (23.99)	39.88 (25.88)	6394.62	2	3197.31	5.32**	3>1, 3>2

( ) 안은 표준편차

남자의 영적 만족 정도에 따른 영역별 평균점수의 차이와 통계검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개인의 영적 만족 정도에 따른 분석에서도 영적 만족은 결혼 만족의 전반적인 영역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자 개인의 영적 만족이 높은 집단이 부부관계에 대해 유의하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족과 관련된 영역들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였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못하였다($F=4.44(p<.05)$, $F=5.32(p<.05)$). 가장 큰 차

건양대학교 | IP: 211.225.30.*** | Accessed 2017/11/04 19:24(KST)

이를 보이는 영역들은 커플 친밀(F=94.05), 커플 유연(F=88.76), 의사 소통(F=75.44) 등이었고 원가족 관련 영역을 제외하고 가장 차이를 적게 보이는 영역들은 역할 관계(F=36.97), 자녀 양육(F=40.96), 갈등 해결(F=48.79) 등이었다.

〈표 5〉 여자 개인의 영적 만족 정도에 따른 영역별 결혼 만족도의 차이

영역	1. 불만족	2. 중간	3. 만족	SS	df	MS	F	Scheffe
전반적인 결혼 만족도	26.42 (24.62)	49.40 (26.11)	65.34 (25.52)	171009.60	2	85504.80	130.93***	3>2>1
성격 문제	19.24 (20.70)	32.00 (22.47)	42.31 (26.55)	59715.08	2	29857.54	54.93***	3>2>1
의사 소통	27.74 (20.73)	43.78 (22.36)	54.58 (23.54)	81484.69	2	40742.34	81.89***	3>2>1
갈등 해결	20.00 (19.50)	31.45 (20.56)	41.43 (22.44)	51488.55	2	25744.28	59.14***	3>2>1
재정 관리	39.48 (28.97)	58.14 (28.21)	66.51 (26.24)	85759.08	2	42879.54	55.27***	3>2>1
여가 활동	25.57 (19.33)	36.33 (22.14)	49.41 (21.16)	64445.067	2	32222.54	71.99***	3>2>1
성관계	44.01 (28.72)	59.48 (26.77)	71.93 (24.07)	87524.1	2	43762.05	62.10***	3>2>1
자녀 양육	38.49 (26.99)	51.40 (31.20)	62.44 (32.97)	64307.35	2	32153.67	34.10***	3>2>1
가족 친구	36.09 (24.15)	51.59 (23.95)	59.54 (23.51)	63609.74	2	31804.87	55.78***	3>2>1
역할 관계	44.95 (22.88)	54.68 (21.41)	62.82 (20.91)	35790.97	2	17895.48	38.14***	3>2>1
커플 친밀	41.75 (27.49)	63.42 (24.13)	75.17 (20.90)	128480.72	2	64240.36	109.81***	3>2>1
가족 친밀	35.57 (26.63)	36.19 (25.38)	38.53 (26.14)	1163.29	2	581.65	.86(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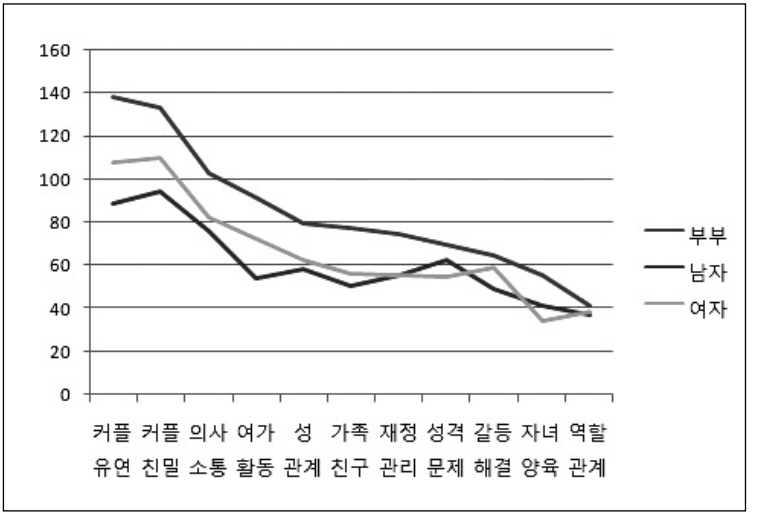
건양대학교 | IP: 211.225.30.*** | Accessed 2017/11/04 19:24(KST)

커플 유연	33.25 (25.49)	55.07 (23.21)	65.21 (22.10)	119359.78	2	59679.89	107.95***	3>2>1
가족 유연	34.11 (23.88)	35.90 (24.87)	37.73 (25.56)	1909.45	2	954.72	1.57(NS)	

( ) 안은 표준편차

여자의 영적 만족 정도에 따른 평균점수의 차이와 통계 검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여자 개인의 영적 만족 정도에 따른 분석에서도 영적 만족은 결혼 만족의 전반적인 영역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자 개인의 영적 만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부부관계에 유의미하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가족과 관련된 영역들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영역들은 커플 친밀(F=109.81), 커플 유연(F=107.95), 의사소통(F=81.89) 등이었고 원가족 관련 영역을 제외하고 가장 차이를 적게 보이는 영역들은 자녀 양육(F=34.10), 역할 관계(F=38.14), 성격 문제(F=54.93) 등이었다.

〈그림 1〉 부부, 남편, 아내의 결혼 만족 영역별 F 값 비교 그래프



건양대학교 | IP: 211.225.30.*** | Accessed 2017/11/04 19:24(KST)

<그림 1>을 통해 결혼 만족의 각 영역 간 F값의 비교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이는 영적 만족에 따른 집단 간 차이의 다소를 순서에 따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커플의 유연성과 친밀성이 가장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으며 결혼 만족의 하위 요소로는 의사 소통, 여가 활동, 성관계, 가족과 친구, 재정관리, 성격 문제, 갈등 해결, 자녀 양육, 역할 관계의 순서로 드러났다. 부부의 일치도는 남자와 여자를 각각 고려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순서를 보였는데, 남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적 만족에 따라 성격 문제의 차이가 좀 더 두드러진 반면, 여자의 경우 갈등 해결이 다소 높은 순서를 차지한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표 6〉 부부의 영적 만족과 이혼 고려 여부
(괄호 안은 각 집단 내에서의 이혼 고려 여부의 비율)

	이혼 고려 여부	영적 불만족 집단	중간 집단	영적 만족 집단	계
부부	둘 다 이혼 고려	42 (17.9%)	14 (6.8%)	16 (4.3%)	72 (8.8%)
	둘 중 한 사람만 이혼 고려	69 (29.5%)	42 (20.5%)	49 (13.0%)	160 (19.6%)
	둘 다 이혼 고려하지 않음	123 (52.6%)	149 (72.7%)	311 (82.7%)	583 (71.5%)
	계	234 (100.0%)	205 (100.0%)	376 (100.0%)	815 (100.0%)
남편	이혼 고려	53 (23.2%)	44 (12.9%)	15 (6.1%)	112 (13.7%)
	이혼 고려하지 않음	175 (76.8%)	297 (87.1%)	231 (93.9%)	703 (86.3%)
	계	228 (100.0%)	341 (100.0%)	246 (100.0%)	815 (100.0%)
아내	이혼 고려	91 (42.9%)	73 (20.0%)	28 (11.8%)	192 (23.6%)
	이혼 고려하지 않음	121 (57.1%)	292 (80.0%)	210 (88.2%)	623 (76.4%)
	계	212 (100.0%)	365 (100.0%)	238 (100.0%)	815 (100.0%)

부부의 영적 만족과 이혼 고려 여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카이 자승 검증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X2=70.24 p <.000). 표를 살펴보면 영적 만족이 높은 집단에서 이혼을 적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수치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한편, 남자의 영적 만족과 이혼 고려 여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카이 자승 검증에서는 영적 만족이

건양대학교 | IP: 211.225.30.*** | Accessed 2017/11/04 19:24(KST)

높은 남자 집단이 이혼고려를 적게 하는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X2=29.70, p<.000). 여자의 영적 만족과 이혼 고려 여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카이 자승 검증에서는 영적 만족이 높은 여자 집단이 이혼고려를 적게 하는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X2=65.10, p<.000).

〈표 7〉 부부의 영적 만족과 가정 폭력 여부
(괄호 안은 각 집단 내에서의 폭력 정도의 비율)

	폭력 여부	영적 불만족 집단	중간 집단	영적 만족 집단	
전체	비폭력	95 (40.6%)	139 (67.8%)	287 (76.3%)	521 (63.9%)
	폭력	139 (59.4%)	66 (32.2%)	89 (23.7%)	294 (36.1%)
		234 (100.0%)	205 (100.0%)	376 (100.0%)	815 (100.0%)
남편	비폭력	127 (55.7%)	251 (73.6%)	209 (85.0%)	587 (72.0%)
	폭력	69 (30.3%)	69 (20.2%)	31 (12.6%)	160 (20.7%)
	심한 폭력	32 (14.0%)	21 (6.2%)	6 (2.4%)	59 (7.2%)
		228 (100.0%)	341 (100.0%)	246 (100.0%)	815 (100.0%)
아내	비폭력	133 (62.7%)	305 (83.6%)	210 (88.2%)	648 (79.5%)
	폭력	56 (26.4%)	55 (15.1%)	22 (9.2%)	133 (16.3%)
	심한 폭력	23 (10.8%)	5 (1.4%)	6 (2.5%)	34 (4.2%)
		228 (100.0%)	341 (100.0%)	246 (100.0%)	815 (100.0%)

부부의 영적 만족과 가정폭력 발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카이 자승 검증에서는 영적 만족이 높은 집단에서 낮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가정 폭력이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X2=81.64, p<.000). 자세한 수치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한편, 남자의 영적 만족과 가정폭력 발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카이 자승 검증에서는 영적 만족이 높은 남자집단이 가정폭력을 적게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X2=55.06, p<.000). 여자의 영적 만족과 가정폭력 발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카이 자승 검증에서는 영적 만족이 높은 여자 집단에서 가정폭력을 적게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X2=62.51, p<.000).

건양대학교 | IP: 211.225.30.*** | Accessed 2017/11/04 19:24(KST)

IV. 논의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영적으로 만족하는 기독교인 부부는 결혼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가 구성되기 전인 원가족의 친밀감과 유연성은 영적인 만족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영적인 만족이 원가족의 유사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단 부부가 된 이후에는 유연성과 친밀감을 비롯한 모든 결혼 만족도의 요소들에서는 영적인 만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가족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친밀감과 유연성을 제외한 10개의 결혼 만족도 소척도 중에서는 특히 의사소통의 만족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부간의 소통이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차원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의 교감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기독교인들 간의 영적인 교류가 심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촉발할 수 있을 것이다. 영적인 만족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의사소통에 이어 여가 활동, 성관계, 가족 친구, 재정 관리, 성격 문제, 갈등 해결, 자녀 양육, 역할 관계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남녀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남자가 영적으로 만족할 때 배우자의 성격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더 많았고, 여자는 갈등 해결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친밀감이 삶의 가치와 규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줄 뿐 아니라, 여가 활동, 재정, 친구 관계 등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들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근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Butler와 Gardner, Bird(1998)는 부부가 갈등이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것이 적대감을 감소시키고 파트너에 대한 공감능력을 증진시킨다는 보고를 하였고, 다른 연구자들은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가 갈등을 감소시키고 만족도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들을 발표하여(Heck, 2006, Fincham 등, 2008) 부부의 결혼 만족도가 영성에 의해 영향 받는 이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해준 바 있다.

영적인 만족도와 부부의 이혼 고려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영적인 만

건양대학교 | IP: 211.225.30.*** | Accessed 2017/11/04 19:24(KST)

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이혼고려를 적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적 불만족 집단의 경우 47.4%가 둘 중 한 사람 또는 둘 다 이혼을 고려하였으나, 영적 만족 집단의 경우 28.5%만이 둘 중 한 사람 또는 둘 다 이혼을 고려하였다. 이는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종교집단, 특히 본 연구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혼이 하나님이 짝지워주신 것을 깨뜨리는 옳지 못한 행동으로 개념화되고 있는 것이 큰 요인으로 생각된다. 남자와 여자의 개인별 점수로 살펴볼 때에도 영적 만족이 높을수록 이혼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이혼을 고려하는 여자가 23.6%이고 남자가 13.7%로 나타나, 남자보다는 여자가 이혼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eorge와 George (2009)가 소개한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들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441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영성과 결혼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남편의 영성은 자신의 만족도와 아내의 만족도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지만 아내의 영성은 자신의 만족도와 남편의 만족도 모두에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서 남편의 영성이 부부의 결혼 만족도에 좀 더 중요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결혼 만족도나 이혼에 대한 영적인 만족은 남편의 영향이 아내의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파악된다.

부부의 영적 만족이 높은 집단에서는 가정폭력도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점수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폭력을 사용하는 남자가 27.9% 폭력을 사용하는 여자가 20.5%로 남자가 여자보다 폭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에 대한 검증된 척도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검사지의 배경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항을 사용했다는 한계가 있으나, 배우자가 학대를 받았다고 보고한 점수와 본인의 영적인 만족을 보고한 점수를 계산한 것으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만족이 이혼 경향성을 감소시키는 보호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밝힌 것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 부부들의 '이혼을 미워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부의 애정과 가족관계의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건양대학교 | IP: 211.225.30.*** | Accessed 2017/11/04 19:24(KST)

기독교 상담자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연구에서 측정된 영적 만족은 예배 참석 유무나 기도의 시간, 신앙생활의 기간 등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부관계가 좋아진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종교성이 강하긴 했지만, 보수적이고 영적 성숙도가 낮았으며(Leak 등, 1995) 성범죄 가능성이 높았고(Walker, Rowe와 Quinsey, 1993), 수직적인 부부 문화를 가지고 있을 경우 신학교육을 많이 받았고 목회활동을 오래하였어도 결혼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에 유념해야 한다(반신환 등, 2008).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에 사용된 검사자료의 상당수가 교회에서 실시한 부부 세미나에 참석했던 기독교인들이 작성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부부의 영적 만족 점수가 90점 이상인 부부가 무려 42%에 달하였고 30대가 많으며 노인집단이 적었다. 또한 직업군 역시 편향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보통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들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참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연구 결과가 전체 한국 기독교인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영적인 만족이 높을수록 부부의 가족 기능이 매우 높고 결혼 만족이 높았으며 이혼을 고려하지 않았고 가정폭력도 덜 발생했다는 결과는 임상적으로는 매우 활용가치가 높으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건양대학교 | IP: 211.225.30.*** | Accessed 2017/11/04 19:24(KST)

참고문헌

김덕일, 박재우, 송원영, 이지연. (2009). 한국판 ENRICH 결혼 만족 검사의 타당화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7**(11). 11-34.

김동기. (2007). 행복과 종교적 태도의 개념관계 모형들에 대한 비교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2), 347-365

노치영, 박성연. (1992). 가족 폭력의 세대간 전이에 관현 연구; 부모의 폭력 행동과 아동의 공격성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0권 4호, 219-230.

박정묘, 심혜숙. (2009). 심리기능에 따른 자기효능감, 페르소나, 영성이 중년기 생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311-328.

반신환, 조성현, 조윤옥. (2008). 부부만족도와 부부문화성향: 목회자부부와 비목회자부부의 비교.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17-234

이경열, 김정희, 김동원. (2003). 한국인을 위한 영성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11-728

이지연, 오경자. (2007). 아동기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폭력에 대한 태도와 분노 조절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권 4호, 433-450.

Altemeyer, B., Hunsberger, B. (1992). Authoritarianism, religious fundamentalism, quest, and prejudice. The International Jol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20:113-133.

Asai, S. G. & Olson, D. H. (2003). *Spouse Abuse & Marital System based on ENRICH.* https://www.prepare-enrich.com/pe_main_site_content/pdf/research/abuse.pdf

Butler, M. H., Gardner, B. C., & Bird, M. H. (1998). Not just a time-out: Change dynamics of prayer for religious couples in conflict situations. *Family Process*, 37(4), 451-475.

DeVoe, E. R., & Smith, E. L. (2002). The impact of domestic violence on urba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7, 1075-1101.

Fincham, F. D., Beach, S. R. H., Lambert, N., Stillman, T., & Braithwaite, S. (2008). Spiritual behavior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 critical analysis of the role of prayer.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7(4), 362-388.

Fowers, B. J., Olson, D. H. (1992). Four Types of Premarital Couples: An Empirical Typology based on PREPAR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 6, No. 1,

건양대학교 | IP: 211.225.30.*** | Accessed 2017/11/04 19:24(KST)

10-21.

Fowers, B. J., Montel, K. H., Olson, D. H. (1996). Predicting Marital Success For Premarital Coupl Types based on PREPARE. *Journal of Marital & Family Therapy,* Vol. 22, No. 1, 103-119.

George, E. E., & George, D. M. (2009). *The Compatibility CODE.* Morgan James Publishing, Garden City, NY, p20.

Heck, T. A. (2006). *Sacred healing of marriage: A quasi-experimental study of prayer's effect on marital satisfaction among catholic and protestant Christians.* (Doctoral dissertation, Capella Univerity, 2006).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67(1), 599B. (UMI No. 3206555)

Mahoney, A., Pargament, K. I., Tarakeshwar, N., Swank, A. B. (2001). Religion in the home in the 1980s and 1990s: a meta-analytic review and conceptual analysis of links between religion, marriage, and parent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4), 559-596.

McNeil, C. B., Herschell, A. D., Gurwitch, R. H., & Clemens-Mowrer, L. (2005). Training foster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Education and Treatment of Children, 28, 182-196.

Larson, P. J. Olson, D. H. (2005). Spiritual Beliefs and Marital Success: A National Survey. https://www.prepare-enrich.com/pe_main_site_content/pdf/research/beliefsandmarriage.pdf

Leak, G. K., Randall, B. A. (1995). Clarification of the Link between Right-Wing Authoritarianism and Religiousness: The Role of Religious Maturity,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34, No. 2, 245-252.

Olson, D. H., Fowers, B. J. (1993). Five Types of Married Couples based on ENRICH *The Family Journal,* Vol. 1, No. 3, 196-207.

Riggio, H. R. (2004). Parental marital conflict and divorce, parent-child relationships, social support, and relationship anxiety in young adulthood. *Personal Relationships*, 11, 99-114.

Stith, Green, Smith, & Ward. (2008).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Discord as Risk Marker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 23, No. 3; Springer Netherlands.

Sullivan, K. T. (2001).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sity and marriage: An investigation of the immediate and longitudinal effects of religiosity on newlywed coupl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 (4), 610-626.

Trochim, W. M. (2002). Likert Scaleing. in *General Issues in Scaling*. unpublished script for lecture. http://www.indiana.edu/~educy520/sec5982/week_3/

건양대학교 | IP: 211.225.30.*** | Accessed 2017/11/04 19:24(KST)

scaling_trochim.pdf

Walker, W. D., Rowe, R. C., Quinsey, V. L. (1993). Authoritarianism and Sexual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No. 5, 1036-1045.

Walsh, J. (1999).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F. Walsh (Ed.), *Spiritual resources in family therapy*, 3-27.

건양대학교 | IP: 211.225.30.*** | Accessed 2017/11/04 19:24(KST)

K-ENRICH: Spiritual Power on Marriage

Kevin Deokil Kim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Wonyoung Song (Kon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relation between spiritual satisfaction of Korean Christian married couples and marital satisfaction, considering divorce, and spouse abuse based on K-ENRICH inventory. Total 815 married couples' data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s, Highly spiritually satisfied couples were more cohesive and flexible than the others. Also, they were satisfied in the other 9 factors of marriage satisfaction. They hardly considered divorce and reported less spouse abuse than those who were not satisfied spiritually. Men were more violent than women, and women considered divorce more than men. The meaning of the results,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 **Key words** : ENRICH, Spiritual Satisfaction, Marital Satisfaction, Spouse Abuse

논문투고일: 2010년 10월 4일, 심사일: 2011년 3월 20일, 논문게재일: 2011년 5월 20일

건양대학교 | IP: 211.225.30.*** | Accessed 2017/11/04 19:24(KST)